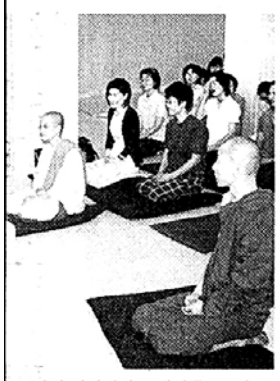
마음챙김' 에"

큰스님

스님

수행센터 원장)

가져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하시 스님으로부터 배운 가장
적에 나는 가르침은.
오늘 법문한 4념처에 대한 빈틈없
마음챙김(sati)이자, 바로 불방일(不
逸, appamaada)의 실천입니다. 스승
은 아빠마다를 솔선해서 행하셨고,
에도 권유했습니다. 아빠마다는 할
은 해야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 않는 것입니다. 번뇌를 없애버
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
빈틈없는 마음챙김이 유일한
입니다."
▶큰스님께서는 90년대 이후부터
구에도 불구하시고, 전 세계로 전법
행을 다니고 계십니다. 이같은 원력



스님이 미얀마인 300여명등 3000여 불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마하시 큰스님이 외국 수행자들의
성에 의해 전법여행을 다녔듯이, 저
시 큰스님의 뜻을 이어 해외전법에
서고 있습니다. 법을 알고자 하는
공덕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법을
하는 것이 스님들의 의무입니다."
▶큰스님께서는 1988년 거해스님
함께 한국을 방문해, 처음으로 국내
위빠사나를 전수한 것으로 알고 있
니다. 당시와 지금의 소감은.
오늘 법회에 이처럼 많은 불자들이
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위빠사나

미얀마 위빠사나의 해외 전법은 마하시 스님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수제자인 우 빤디따 스님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우 빤디따 스님은 미얀마 내의 500여 수행센터는 물론 미국, 영국, 호주, 말레이지아, 네팔,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위빠사나를 지도하고 있다.

1921년 7월 28일, 현재 미얀마의 수도인 양곤에서 태어난 스님은 7세에 처음으로 사원교육을 받기 시작해, 초급과 중급 과정의 빨리경전 구술시험을 통과했다. 20세에 구족계를 받고 비구가 된 후, 여러 스승 아래에 본격적인 교리연구를 시작, 1951년에 실시된 법사(法師, Dhammacariya)시험에 합격한다. 29세가 되던 1950년, 드디어 마하시 스님의 지도하에 위빠사나 수행을 닦는다.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서 1954년부터 1956년까지 진행된 제 6차 상좌부 경전 결집 때에 우 빤디따 스님은 경전의 교정을 보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1959년, 마하시 스님과 함께 스리랑카로 건너가 새로 건립한 위빠사나 센터에서 3년 동안 위빠사나 지도를 한 후, 1962년에 귀국했다.

우 빤디따 스님은?

'마하시 수행센터' 원장…美·영·한국등서 위빠사나 지도

1982년 8월 마하시 스님의 입적 후, 마하시 스님의 뒤를 이어 우 빤디따 스님은 마하시 수행센터의 원장에 취임했다. 그 후, 1990년 10월 마하시 센터를 떠나 마하시 센터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새로이 세워진 수행센터 빤디따라마의 원장이 되기까지 수많은 수행자들을 지도해 왔다.

수행자들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또한 수행자들은 예전보다 진지해졌고, 성숙한 것처럼 보입니다."

◆북방불교의 일부에서는 계율을 소홀히 하고, 기복신앙을 조장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을 남방불교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수행이든 단 5분만이라도 직접 실천하고 체험하세요

"나는 대승불교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기위해 이 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 상좌부 전통에 대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직접 와서 수행해보고 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것입니다. 최근 한국, 일본, 대만 등 북방불교의 많은 스님들이 선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얀마에 오고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미얀마는 위빠사나 전통이 가장 강한 불교국가로서, 어느 나라보다도 아라한이 많이 출현한 것으로 압니다.

"실제 누가 아라한이었는지는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경전에서는 아라한의 경지가 묘사되어 있지만, 스스로 아라한이라고 말하지 않는한 실제로 그 경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설사 깨우쳤다 하더라도 아라한은 자아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아라한이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라한이 되는 길을 묵묵히 걷는 수행자들은 많습니다."

◆북방불교, 예를 들면 선종은 사마타(samatha, 선정)를 중요시 합니다. 위빠사나(vipassana, 통찰)에서도 사마타를 중요시 하는가요.

"마음집중, 평온, 고요함을 의미하는 사마타 수행의 결과로는 카니카 사마디(khanika-samadhi, 순간 삼매), 우빠짜라 사마디(upacara-samadhi, 근접삼매), 아빠나 사마디(appana-samadhi, 安止定) 등이 있습니다. 이중 위빠사나 수행에서 필요한 사마디는 순간적인 마음집중을 의미하는 카니카 사마디입니다. 이는 관찰 대상에 한 순간 한 순간 마음챙김이 확립되어 있을 때 생기는 마음집중으로, 이런 마음집중이 생길 때 오온(五蘊)이 극복되면서 위빠사나 수행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위빠사나 수행의 목적은 정신과 육체의 과정을 그 참된 본질에서 올바르게 이해함을 통해서 괴로움의 소멸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마타 수행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마타는 마음과 몸에 대한 지속적이며, 끊어짐 없는 마음챙김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간화선에선 깨어 있을 때도, 꿈을 꿀 때도, 숙면(熟眠) 때도 공부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위빠사나의 마음챙김은 꿈 속에서도 가능한가요.

"잠 잘 때는 대상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잠잘 때 알아채는 식(識)은 있지만, 알아채는 힘이 미약합니다. 위파사나에서도 '알아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잠에 빠지기 전에 하라는 말입니다. 수행할 때 졸음을 주시해 잠이 오는 의도함을 관찰해 봐야 합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닦는 사념처관을 통해 문득, 존재의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은 어떤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까. 물질과 정신이 항상(恒常)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가운데서도 불변의 근본은 있습니까?.

"열반을 빼고는 모든 것이 조건이 생겼을 때 일어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카라(sankhara, 조건지어져 있는 사물)는 원인이 맞아떨어졌을 때 일어나고, 원인이 소멸됐을 때 사라집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신통력이 있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현대에 신통이 있는 고승들이 적은 것은 선정이 깊지 않기 때문입니까.

"탐진치가 많아 수행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신통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도 한 요인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신지 3천여년이 다가오면서, 불법도 말법시대에 접어들었다고들 합니다. 불교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나는 말법시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불법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있는 한 불법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 불자들을 위해 법문을 내려주십시오.

"오늘 법문 주제와 같은 '불방일'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챙김을 놓치지 않고 지키는 부지런함에는 계정혜 3학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불방일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번뇌를 제거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꿰뚫어 보는 앎을 얻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30년전 어느 날, 담마토크 시간에 한 제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우선 하루 수행해 보고 질문을 하라'고 말이죠. 그 제자는 그후 답을 스스로 찾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수행도 직접 해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책을 보고 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단 5분이라도 직접 실천하고 체험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대답입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설곡스님의 스님이야기

지월스님



비구의 생활은 모든 것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 의식주에서 수도하는 일까지 어떤 것도 남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남에게 부탁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고 인색해지고 교만에 빠지기 쉽다. 이를 경계하여 일찍이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비구들이여, 머리를 스스로 깎지 말지니 서로 부탁하여 상대방의 머리를 깎아 주도록 할 것이니라." 이것을 어기면 가벼운 죄를 짓는 것이니 참회해야 한다고 율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비구는 한 달에 두번씩 고개를 숙이고 "머리 좀 깎아주십시오"라고 부탁하여 하심하는 자세를 익히는 것이다. 불가에서는 머리를 무명초(無明草)라 한다. 무명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머리로 인해 허영심이 일어나고 자신을 망각하며 업장을 짓게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명의 풀은 미리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다.

대중생활에서 삭발은 중요한 의식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비구는 한 달에 두번은 삭발을 해야 한다. 겨울에는 온도를 맞추어 대야에 물을 준비해 놓은 뒤 무릎을 꿇고 '스님, 삭발 준비되었습니다' 알리면 아무리 구참 선배라도 신참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부탁합니다' 라고 해야 하며, 깎고나서는 서로 마주 보며 '잘못되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하고 합장하는 것이 예의다. 무명의 풀을 끊어주니 고맙지 않을 수 없다.

며칠 전, 신도가 찾아왔다. 영명사로 절을 옮기겠다는 것이다. 다니던 대구의 절은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가슴이 답답했다. 절에 찾아온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요,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답답한 일이다.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업신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일이요, 당신은 업신여김을 당했으니 그것을 참고 더욱 하심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다행입니까.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절에 다니면서 업장만 짓게되는 수가 있다. 시주를 조금 낮게 하였다고, 혹은 직책을 맡았다고 해서 처음 오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겨 서운하게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절에 다니면서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대접받으러 절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기 위해 절에 다니는 것 아닌가. 부처님과 스님을 대접하고 일체 중생을 따뜻이 대접하기 위해 절에 다녀야 옳다. 염불하고 절하는 등의 수행도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지월스님께선 일의일발(一衣一鉢)로 일생을 사셨지만 인욕과 하심으로 갑옷을 입으셨고, 지혜와 자비로 방패를 삼으신 분이었다. 도량의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하셨지만 비굴하지 않으시어 주인 같으셨고, 총림의 주지라는 높은 직책을 맡으셨지만 교만하지 않으시어 항상 초심행자 같으셨다. 스님은 항상 도량을 다니면서 휴지를 줍고 청소를 하시다가도 사시마지(巳時摩旨) 때가 되면 법당에 들어가셔서 축원을 하셨다. 그 축원하시는 음성이나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고 간절하시던지 나는 그때의 감동을 지금까지 가슴에 지니고 있다. 내가 법당에 올라 축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월스님의 축원하시던 모습을 회상하며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되고 싶어 한다.

나는 80년대 중반에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십칠팔 년만에 귀국했다. 귀국하여 글을 쓰는 첫 인연으로 〈스님 이야기〉를 쓰게 되었다. 내가 만났던 훌륭하신 스님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의 수행을 돌아보고 싶었다.

인욕·佛心·지혜·자비의 일생

"왜 출가했나" 자기성찰 강조

나는 한국을 떠나던 당시의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돌아와 보니 한국과 우리 승가는 엄청난 변화를 가졌다. 사찰은 그때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졌고 불사는 대형화되었다. 절이 커지고 대형화된 불사가 많아진 것은 불교 외형의 변화일 것이다. 불교 외형의 변화만큼 우리 수도자의 내면 수행도 깊어졌는가 묻고 싶다. 수도자가 자신의 문제에만 급급하다면 민중은 등을 돌리게 된다. 수도자가 자신의 안일에 빠져 있거나 권력의 맛에 도취되어 있다면 민중과는 거리가 멀다. 민중을 의식하지 않은 종교는 이미 생명력을 상실한 것이다. 학자가 없고 경제적으로 빈약해서 고려불교가 망한 것은 아닐 것이다. 철저한 자기 성찰과 참회, 끝없는 원력과 자비, 그리고 오직 중생을 위해서자신이 존재한다는 생각 없이는 수도자의 생활은 한낱 허식에 불과하다.

지월스님께선 대중이 모여 떠드는 곳에는 항상 소리없이 다가와 경책해 주셨다. "그만 마음을 '이뭣고'로 돌립시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출가했습니까? 출가한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자기 손으로 눈을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 내가 왜 출가했는지 자신에게 물어볼 일이다. 민중들이 '당신들은 왜 출가했소?' 라고 묻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끝)

▩ 구미 영명사 주지

周易의 神秘

육효학 핵심비결

송월스님의 두번째 작품 드디어 출간! 전국 서점 판매중!

神과 靈이 통하는 학문. 육효학을 알면 운명이 바뀐다



동양철학은 동방문화의 기틀이요, 사회선도의 지표이다.
육효학은 음과 양 二元의 원리 즉 주역을 본바탕으로 사상팔괘, 육십사괘, 삼백팔십사효를 송월스님 특유의 필체로 쉽게 풀이하여 우리생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육효학이란 동서고금을 통하여 점서(占筮)로써는 가장 적중률이 높은 학문이다.
이 책을 접하는 모든이는 물론이요,
운명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이는 보배 중 보배가 될 것이며 허전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줄 지침서가 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송월스님 지음
신국판/양장본
값30,000원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해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 전국 서점 판매중



송월스님 저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다시 풀어보는 구성학의 사주풀이

문길여 선생님의 두번째 작품 드디어 출간
국내 최초의 역학 지침서

구성학이란 우주의 돌고있는 을 이용하여 우리의부족한 을 보충시키므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구성학을 알면 운명을 알고 운명을 알면 흉운을 길운으로 바꾸어 모자라는 기를 보충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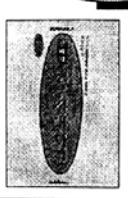
◈ 구성학의 비밀을 소개한다

1. 정생이 역술인 무속인의 운명
2. 자식이 없거나 아들이 없는 여자의 운명
3. 결혼이 늦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여자의 운명
4. 가정의 변화 직업의 변화가 많은 여자의 운명
5. 부동산 4와 4의 대충의 운명
7. 일백에서 구자까지의 뜻



문길여 著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5신/양장본
값 40,000원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 / 혜서 조영수 편저 / 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 / 혜서 조영수 편저 / 정가15,000원(大)
신국판 / 혜서 조영수 편저 / 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 / 김백만 편저 / 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
신국판 / 양장본 김용식 저 / 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 / 김백만 편저 / 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 / 이선암진호일 공저 / 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 / 양장본 / 송월스님 지음 / 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실심부
신국판 / 양장본 / 申坪 /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 / 법류博士 /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 법류博士 /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 / 백광 지음 /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 / 양장본 이상옥 지음 /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설계관
신국판 / 양장본 진상택 저 /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 김윤중 편저 / 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 / 양장본 김성진 저 / 정가 30,000원
16. 신비의 꿈해몽 꿈풀이 삽풀이 대백과
신국판 / 정현우 저 / 정가 17,000원
17. 명가풍가의 가상학 비결
신국판 / 김용식 저 / 정가15,000원
18.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 / 양장본 / 문길여 著 / 정가 25,000원
19. 한국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 / 양장본 / 박봉주 著 / 정가 2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 B/D 3층 T.921-8434 F.929-3470

특허

BBS 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법복·잠옷·바랑 판매 안내

불교계와 저희 기원섬유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고급모직 (특징 - 통풍 잘됨, 가볍고 구김없음,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40,000)
2. 쿨맥스 (특징 - 품질 가장 우수함, 수분 발산율이 빠름, 구김없고 아주 가벼움, 물세탁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80,000) (동방바지 : ₩170,000) (두루막 : ₩150,000)
3. 특수직 (특징 - 제일 가볍고 시원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40,000) (동방바지 : ₩130,000) (두루막 : ₩110,000)
4. 아포텍스 (특징 - 몸에 붙지 않으며 까칠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60,000) (동방바지 : ₩150,000) (두루막 : ₩130,000)
5. 광목 (특징 - 순수한국산, 손염색, 멋을 가진 승복)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30,000)
6. 장삼 (조계종, 태고종) - 춘추, 하절기(가사도 주문 받습니다.)
(고급모직 : ₩220,000) (특수직 : ₩200,000)
7. 셔츠 (차이나, 라운드) : 가볍고 시원하며 물세탁 가능 : ₩30,000)
8. 걸망, 바랑, 나들이가방, 손가방, 보조가방
9. 가볍고 예쁜 법복(회색, 밤색) : 조끼 바지 : ₩65,000



하절기 시원하게 보내실수 있게 저희 기원섬유가 책임지겠습니다.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십선(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세팔란을 소멸합니다.

◒ 잠옷(항균처리) - 남, 여(상, 하) : ₩65,000
특징 : 1. 특허청에 의장 등록된 옷자, 연꽃무늬가 은은하게 들어있음(제0246178호)
2. 항균처리된 제품
항균처리란? 각종 박테리아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청결한 몸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특수제품 임
3. 고급순면으로 촉감이 아주 뛰어남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본 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02호
TEL : (053)764-4114 H·P : 011-9850-4400

지역 판매점 모집